

A 3x12 grid of circles. The first 6 columns contain a sequence of 18 circles (3 rows by 6 columns). The next 6 columns contain a sequence of 18 circles (3 rows by 6 columns). The last 6 columns contain a sequence of 18 circles (3 rows by 6 columns). The circles are filled green or empty, representing a binary sequence.

시각장애인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어요!

## 02 | 목차

## 03 | 점자로 말해요

- ▶ 입학

## 04 | 시선집중

- ▶ [성명서]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화면해설방송도 즉각 편성하라!

## 06 | 테마기획

- ▶ 지폐,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 08 | 인터뷰

- ▶ 수소 자율주행차 시승기를 소개합니다! 한빛맹학교 김찬홍 선생님

## 10 | 포커스

- ▶ 시각장애인도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어요!

## 12 | 함께 사는 이야기

- ▶ 한국에서의 장애는 천병이었나?

조재훈(시각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 13 | 월드 리포트

- ▶ MS, 시각장애인을 위한 듣는 지도 앱 출시!
- ▶ 영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안내견 대신 안내마 입양해

## 14 | 뉴스앨범

- ▶ 한국화면해설 · AD작가협회 발기인 대회 및 설립총회 가져
-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공직진출대비반에서 공무원2명, 교원 2명 최종 합격!
- ▶ 꾸까와 함께하는 꽃향기 가득한 토요 원데이클래스!
- ▶ G.X 수업으로 근력을 향상시켜요!

## 16 |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 ▶ 인사나 대화할 때



3월이 되면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 입학은 점자로 어떻게 나타낼까요?

입 학

① ④  
② ⑤  
③ ⑥

| 점자 일람 표 |             |          |                    |          |                  |             |             |                  |            |          |               |          |             |               |               |
|---------|-------------|----------|--------------------|----------|------------------|-------------|-------------|------------------|------------|----------|---------------|----------|-------------|---------------|---------------|
| 자 음     | ㄱ<br>⠠⠠⠠    | ㄴ<br>⠠⠠⠠ | ㄷ<br>⠠⠠⠠           | ㄹ<br>⠠⠠⠠ | ㅁ<br>⠠⠠⠠         | ㅂ<br>⠠⠠⠠    | ㅅ<br>⠠⠠⠠    | ㅇ<br>⠠⠠⠠         | ㅈ<br>⠠⠠⠠   | ㅊ<br>⠠⠠⠠ | ㅋ<br>⠠⠠⠠      | ㅌ<br>⠠⠠⠠ | ㅍ<br>⠠⠠⠠    | ㅎ<br>⠠⠠⠠      | 된소리<br>⠠⠠⠠    |
| 받 침     | ㄱ<br>⠠⠠⠠    | ㄴ<br>⠠⠠⠠ | ㄷ<br>⠠⠠⠠           | ㄹ<br>⠠⠠⠠ | ㅁ<br>⠠⠠⠠         | ㅂ<br>⠠⠠⠠    | ㅅ<br>⠠⠠⠠    | ㅇ<br>⠠⠠⠠         | ㅈ<br>⠠⠠⠠   | ㅊ<br>⠠⠠⠠ | ㅋ<br>⠠⠠⠠      | ㅌ<br>⠠⠠⠠ | ㅍ<br>⠠⠠⠠    | ㅎ<br>⠠⠠⠠      | 쓰받침<br>⠠⠠⠠    |
| 모 음     | ㅏ<br>⠠⠠⠠    | ㅑ<br>⠠⠠⠠ | ㅓ<br>⠠⠠⠠           | ㅕ<br>⠠⠠⠠ | ㅗ<br>⠠⠠⠠         | ㅛ<br>⠠⠠⠠    | ㅜ<br>⠠⠠⠠    | ㅠ<br>⠠⠠⠠         | ㅡ<br>⠠⠠⠠   | ㅣ<br>⠠⠠⠠ |               |          |             |               |               |
|         | ㅐ<br>⠠⠠⠠    | ㅑ<br>⠠⠠⠠ | ㅓ<br>⠠⠠⠠           | ㅕ<br>⠠⠠⠠ | ㅗ<br>⠠⠠⠠         | ㅛ<br>⠠⠠⠠    | ㅜ<br>⠠⠠⠠    | ㅠ<br>⠠⠠⠠         | ㅡ<br>⠠⠠⠠   | ㅣ<br>⠠⠠⠠ | ㅑ<br>⠠⠠⠠      | ㅓ<br>⠠⠠⠠ | ㅕ<br>⠠⠠⠠    | ㅗ<br>⠠⠠⠠      | ㅛ<br>⠠⠠⠠      |
| 약 자     | 가<br>⠠⠠⠠    | 나<br>⠠⠠⠠ | 다<br>⠠⠠⠠           | 마<br>⠠⠠⠠ | 바<br>⠠⠠⠠         | 사<br>⠠⠠⠠    | 자<br>⠠⠠⠠    | 카<br>⠠⠠⠠         | 타<br>⠠⠠⠠   | 파<br>⠠⠠⠠ | 하<br>⠠⠠⠠      | 억<br>⠠⠠⠠ | 언<br>⠠⠠⠠    | 얼<br>⠠⠠⠠      | 연<br>⠠⠠⠠      |
|         | 열<br>⠠⠠⠠    | 영<br>⠠⠠⠠ | 옥<br>⠠⠠⠠           | 온<br>⠠⠠⠠ | 웅<br>⠠⠠⠠         | 운<br>⠠⠠⠠    | 울<br>⠠⠠⠠    | 은<br>⠠⠠⠠         | 을<br>⠠⠠⠠   | 인<br>⠠⠠⠠ | 것<br>⠠⠠⠠      |          |             |               |               |
| 약 어     | 그래서<br>⠠⠠⠠  |          | 그러나<br>⠠⠠⠠         |          | 그러면<br>⠠⠠⠠       |             | 그러므로<br>⠠⠠⠠ |                  | 그런데<br>⠠⠠⠠ |          | 그리고<br>⠠⠠⠠    |          | 그리하여<br>⠠⠠⠠ |               |               |
| 숫 자     | 수표<br>⠠⠠⠠   | 1<br>⠠⠠⠠ | 2<br>⠠⠠⠠           | 3<br>⠠⠠⠠ | 4<br>⠠⠠⠠         | 5<br>⠠⠠⠠    | 6<br>⠠⠠⠠    | 7<br>⠠⠠⠠         | 8<br>⠠⠠⠠   | 9<br>⠠⠠⠠ | 0<br>⠠⠠⠠      |          |             |               |               |
| 문 장 부 호 | !<br>⠠⠠⠠    | ?<br>⠠⠠⠠ | .<br>⠠⠠⠠           | ,<br>⠠⠠⠠ | -<br>⠠⠠⠠         | ~(—)<br>⠠⠠⠠ | *<br>⠠⠠⠠    |                  | “ ”<br>⠠⠠⠠ |          | ‘ ’<br>⠠⠠⠠    |          |             | /<br>⠠⠠⠠      |               |
|         | :<br>⠠⠠⠠    |          | 가운뎃점<br>(.)<br>⠠⠠⠠ |          | 말줄임표(...)<br>⠠⠠⠠ |             |             | 말줄임표(...)<br>⠠⠠⠠ |            |          | 소괄호( )<br>⠠⠠⠠ |          |             | 대괄호[ ]<br>⠠⠠⠠ |               |
| 영 어     | 영어시작<br>⠠⠠⠠ | 끝<br>⠠⠠⠠ | 대문자<br>⠠⠠⠠         | a<br>⠠⠠⠠ | b<br>⠠⠠⠠         | c<br>⠠⠠⠠    | d<br>⠠⠠⠠    | e<br>⠠⠠⠠         | f<br>⠠⠠⠠   | g<br>⠠⠠⠠ | h<br>⠠⠠⠠      | i<br>⠠⠠⠠ | j<br>⠠⠠⠠    | k<br>⠠⠠⠠      | l<br>⠠⠠⠠      |
|         | m<br>⠠⠠⠠    | n<br>⠠⠠⠠ | o<br>⠠⠠⠠           | p<br>⠠⠠⠠ | q<br>⠠⠠⠠         | r<br>⠠⠠⠠    | s<br>⠠⠠⠠    | t<br>⠠⠠⠠         | u<br>⠠⠠⠠   | v<br>⠠⠠⠠ | w<br>⠠⠠⠠      | x<br>⠠⠠⠠ | y<br>⠠⠠⠠    | z<br>⠠⠠⠠      | 아포스트로피<br>⠠⠠⠠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 ㅅ, ㅈ, ㅊ, ㅍ, ㅊ, 다음에 약자 영 ㅅ, ㅈ, ㅊ, ㅍ, ㅊ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성명서]

#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화면해설방송도 즉각 편성하라!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장애인방송 고시의무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편성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은 편성에서 제외하여 국정방송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아래와 같은 자막방송과 수어방송을 편성하고 있는 것에는 감사 드린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제외하고 일부 유형의 장애인 방송만을 편성하는 차별적인 행태에는 분노한다.

### ◆ 국회방송

- 자막방송 : 100%
- 수어방송 : 〈NATV뉴스〉 - 평일 09:50(10분), 13:50(10분), 18:00(10분), 21:45(15분)

### ◆ KTV 국민방송

- 자막방송 : 약 40%
- 수어방송 없음

현재 장애인방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에 의해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자막방송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 서비스가 제작·제공되고 있다.

그런데 다른 방송사와 달리, 유일하게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만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사태를 명백한 ‘장애인 방송접근권 훼손’이라 규정하며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시각장애인 시청자를 우롱한 결과를 반드시 사과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표하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이러한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의 처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시청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라!

**둘째,**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시각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품질 높은 화면해설 방송을 즉각 제작하여 주시청시간대에 적극 편성하라!

**셋째,** 국회방송과 KTV 국민방송은 화면해설방송 편성 제외가 시각장애인의 방송 주권을 훼손하는 사건임을 자각하고 우리나라 50만 시각장애인들에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사과하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시각장애인은 지폐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오만원, 만원, 오천원, 천원

우리나라의 지폐 단위인데요.

시각장애인은 지폐를 어떻게 구분해서 사용할까요?

지폐, 많이 사용하시나요?

장을 보고 택시를 타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돈 계산을 할 때 우리는 종종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오만 원, 만원, 오천 원, 천 원권을 조합해 금액에 맞춰 계산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폐의 금액은 색깔, 지폐의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나 한글을 보고 구분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색깔이나 글자로는 지폐를 구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폐를 구분할 때 촉각을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지폐에는 시각장애인의 지폐 구분을 돕기 위한 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007년 기준 신권의 경우 전면 오른쪽에 만 원권은 점 세 개, 오천 원권은 점 두 개, 천 원권은 점 하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쉽게 마모되고 돌출된 정도가 미약해 시각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으며, 심지어 오만 원권에는 점조차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크기는 어떨까요?

신권 지폐의 세로 길이는 모두 68mm로 동일하고 가로인 경우 오만원 권은 154mm, 만 원권은 148mm, 오천 원권은 142mm, 천 원권은 136mm입니다. 시각장애인 당사자가 모든 지폐를 가지고 있을 경우 크기 비교를 통해 지폐를 구분할 수 있지만 모든 지폐의 종류를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종류의 지폐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구분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보통 지인에게 지폐의 금액별 개수를 물어 지갑 등의 수납공간을 이용해 구분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빠른 현금 결제가 필요한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은 지폐를 잘못 내거나 돌려받은 지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시각장애인의 지폐 인식을 도와주는 플라스틱 카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카드는 카드에 지폐를 넣어 접었을 때 끝에 위치한 점자를 읽으면 금액을 알려주는 형태로 제작될 예정인데, 이에 대해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의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한 시각장애인 당사자는 이 소식을 듣고 “아무리 플라스틱 카드가 있다고 해도 지폐를 하나하나 대조하다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못 인식해 더 큰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정확한 기술적 검토를 통해 지폐에 타공 방식으로 점자를 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해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 수소 자율주행차 시승기를 소개합니다! 한빛맹학교 김찬홍 선생님

지난 2월 2일, 현대차그룹에서 올해 선보일  
신형 수소 자율주행자동차 ‘넥쏘’의 시승식을  
진행했는데요.

직접 탑승하신 김찬홍 선생님의 시승 후기를  
소개합니다.



**Q 안녕하세요. 이번 자율주행차 시승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A 자율주행차 시승은 먼저 신청을 받고 추첨을 통해 진행되었고, 저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이용관 사무관님의 추천으로 시각장애인 대표로 시승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컴퓨터를  
전공하고 평소 IT에 관심이 많다보니 각종 IT 정보를 전해주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가 개발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좋은 제의가  
들어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Q 함께 탑승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A 경기자동차과학교 엄희지, 김효경, 장서진 학생과 변산서중 이은세 선생님, 경기 부천여고  
김예현 학생과 코이스토리 연희연 대표, 충북대학교 허성우 박사과정생, TV프로그램  
‘영재발굴단’에 출연했던 자동차 영재 김건 군도 함께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도 이번 시승식을 함께 하셨습니다.

**Q 그렇군요. 자율주행차로 달린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A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판교 IC까지 약 9km 정도를 주행했는데요. 운전석에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자율주행차를 연구한 연구원이 탑승하였고, 보조석에는 기자 분이, 그리고  
뒷좌석에 저를 비롯한 시승식 참가자들이 함께 탑승하였습니다.

**Q 자율주행차라는 것이 자동차가 스스로 도로를 운전하는 것인데, 탑승하실 때 불안함은  
없으셨는지요.**

A 사실 시승 전에 많이 불안했습니다. 자율주행차 탑승이 처음이기도 하고 안전에 대한 믿음  
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날씨의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등 많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타보니 수소전기차이다 보니 일반 차량에 비해 진동과 소음이  
적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Q 자율주행차가 어떤 원리로 운행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제가 설명을 들은 것과 느낀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차는 전체적인 도로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요, 앞뒤좌우 자동차의 흐름을 읽고 속도를 조절하게 됩니다.

또 실제 주행 시 자율주행차가 깜빡이를 넣고 차선을 변경하려 했는데 뒤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차를 감지하고 깜빡이를 다시 끄는 작동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작동이 가능했던 것은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전후좌우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터널이나 지하도 등 어두운 곳은 적외선 등으로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Q 자율주행차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탑재하면 좋을 것 같은 기능이 있을까요?**

A 예전에 방영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전격제트작전이라고 있었는데요, 손목에 찬 시계 비슷한 것에 대고 자동차를 부르면 자동차의 주인이 있는 곳으로 태우러 오는 키트라는 기계가 나온 적 있습니다.

그 장면을 떠올리며 음성 인터페이스와 자율주행차가 결합한다면 시각장애인들도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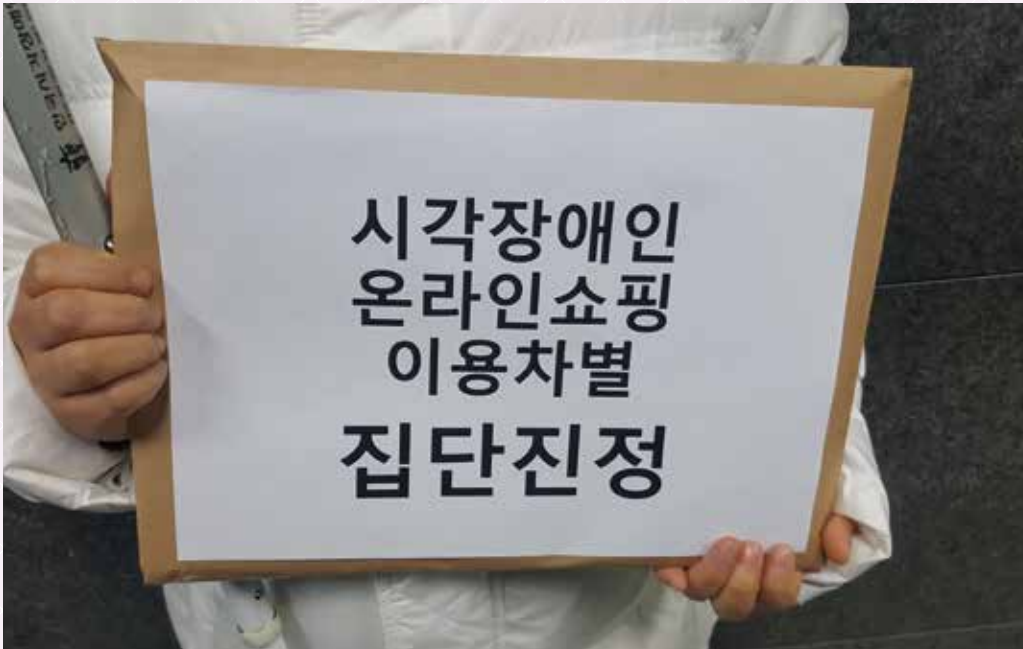
**Q 앞으로 자율주행차의 미래는 어떨까요?**

A 자율주행차 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개발이 5단계까지 진행되는데 현재 3단계의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자동차가 무인으로 주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고 2020년 이후에 스마트 도로에서 이용을 한 후 2030년 정도에 일반 시민들이 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골목길이나 일방통행 도로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만약 상용화 된다면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시각장애인도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하고 싶어요!



온라인 쇼핑물 많이 이용하시나요?

오프라인 쇼핑물에 가기 어렵거나 온라인 세일을 진행하는 경우, 편리한 쇼핑을 원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온라인 쇼핑물을 이용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물 이용 실태는 어떨까요?

최근 웹과 모바일 환경이 발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일들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장을 보는 일도 여기에 해당 되는데요. 대형마트의 온라인 쇼핑물은 필요한 것을 장바구니에 담은 후 주문 및 결제를 마치면 집으로 원하는 시간에 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인데요. 그 이유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의 시각장애인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 입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들은 문자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시각장애 접근성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시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형태의 제품 설명을 제공하거나 구매를 위한 옵션 버튼 등을 대체텍스트 없이 ‘버튼’으로만 읽어주게끔 제작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이용을 원하는 시각장애인 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 50건을 제출했는데요. 이번 진정 제출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고 장애인 차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 한국에서의 장애는 천병이었나?

조재훈(시각1급\_서울특별시 종로구)

내가 서울 맹학교 고등부 1기생으로 최고학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었다. 수중인데 갑자기 복도에서 여러 사람들의 구두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조금 뒤 내가 있던 실습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께서 맹학교를 방문하신 것이었다. 나는 실습담당이시던 김홍진 선생님에게 가 목에 있는 천주혈에 침을 놓고 있었다. 침을 잡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것을 여사님이 눈치 채셨는지 내게로 다가와 어깨에 가만히 손끝을 얹으셨다. 그리고 더 머물러 계셨다. 내가 놓는 침이 다 들어갈 때까지 지켜보시려는 모양이었다. 소위 국모님의 인자하신 손길이란 이러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랫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주려는 배려 말이다. 나의 떨리던 손이 진정되어가고 있었다. 이 모습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수행원들이 활영기를 돌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나 필름 돌아가는 소리가 날 뿐 실내는 아주 조용하였다. 높은 분에 대한 예절이란 이렇게 해 보이는 것이라는 것처럼 그렇게 엄숙하고 절도가 있었다.

“여사님!”

나는 침을 놓는 동작을 멈추지 않은 채 여사님을 향해 입을 열었다. 비록 불손한 행동이라고 퇴학을 당하더라도 나는 각오가 되어 있었다. 시각장애인도 열심히 공부를 하면 잘살게 된다고 하여 실명 후 바로 맹학교에 들어왔었다. 그리고 졸업반에 이르렀지만 모든 것이 너무 절망적이었다. 그 가운데 안마사 자격증 문제가 제일 큰 것이었다. 그것을 위해 국회나 보사부(대한민국 보건사회부)에 가 데모를 하는 것보다 여사님께 호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입을 열었던 것이다. 그러나 여사님은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어깨에 얹었던 손에 무게를 더해 주셨다. 말을 계속하라는 신호 같았다. 따라서 나는 용기를 가지고 다음 말을 계속하게 되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제에서 해방이 된 뒤 오히려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다. 안마사자격증을 위한 유사의료법이 폐기되어 생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었다.

“학생, 열심히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여사님은 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곁에 서 계셨다. 그리고 의례적인 말 같지만 기대를 가져도 될 한 마디를 남기시고 자리를 떠나셨다. 나는 당혹한 행동에 대하여 무슨 문제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그러나 침 자리를 잘못 잡았었다는 꾸중 외에 위로부터 다른 말은 없었다. 워낙 긴장하였기 때문에 헛 자리를 잘못 잡았던 모양이다.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말은 믿지 말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육 여사님의 말씀은 믿고 싶었다. 그러다가 1967년 졸업할 때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실망이었다.

그런데 보사부의 지시라면서 부산 온천동에 있는 국립재활원으로 가지 않겠느냐는 연락이 왔다. 거기에 가 2년간 물리치료 공부를 하면 자격증은 물론 병원에 취직까지 시켜 주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해 4월 맹학교의 졸업생 가운데 9명이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재활원 16기생으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9명 가운데에는 사법과를 나와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셋인데 그중 하나는 대학 3년 재학 중인 선배도 끼어 있었다. 여기에 뽑힌 당사자들은 물론 시각장애인들이 물리치료사가 된다는 데 대한 기대가 대단하였다. 그러나 재활원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받지 않았다. 상부의 지시에 의해 대책도 없이 우리를 받았기 때문이다. 원에서는 그뿐 아니라 교재 한 권 마련이 없었다. 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만이 교수가 되어 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모처럼의 기회를 포기할 수 없어 영국의 왕립도서관에서 점자 의학책을 빌려다가 일일이 손으로 베껴가며 공부를 하게 되었다. 의학 원서로서 그 공부를 하게 된 것이다. 참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도중에 3명은 자퇴를 하고 말았다.

그 재활원은 우리나라의 전후 복구사업의 하나로 미국의 민간인들의 후원을 받아 세웠다고 하였다. 의료재활을 위하여 수술과 치료는 물론 직업재활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었다. 병동과 입원실 그리고 작업장까지 갖추었다. 의족과 의수를 만들어 보급도 하였다. 그래서 1년에 2회에 걸쳐 신입생을 받고 단기는 1년 장기는 2년간 교육을 시켰다. 연구생 제도도 있었다. 이에 각종 장애인 200여 명이 의료조치도 받고 미용, 이발에서부터 세탁, 목공 기술 등 재활 훈련을 받았다. 그러나 예산부족으로 우리들이 2년 졸업 후 페ئن 수순을 밟게 되었다.

산업재활원이란 간판을 다른 곳에서 올리기는 하였으나 시각장애인들의 물리치료과와는 관련이 없었다. 군의관으로 있다가 소록도의 음성 나환자들의 재활에 힘쓰던 초창원이라는 분이 재활원 원장이었는데 우리를 위해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공공로게도 우리를 재활원에 보낸 정חס 보사부장관은 비브리오성장염이란 유사콜레라가 국내에서 발병한 사실을 국제보건기구(WHO)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책임으로 사퇴를 당하였었다. 따라서 조 원장이란 분은 우리들에 대한 문제를 전 장관에게 미룰 구실을 가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자격시험은 결격사유에 걸려있다고 치지도 못하게 하였다. 안마사자격증을 따기보다 더 어려운 조건이었다. 최고 영도자의 명령이 있더라도 하부에서 실행하지 않으면 그만이었다. 아니 장애인들에 대한 문제는 그 운명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었다.

50년이나 지난 일이라 나는 이 일을 그냥 잊고 있었다. 그런데 서울의 모 구청에서 장애인 학교를 신설하는 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니 다시 심화가 끓어오르게 되었다. 물론 개교와 직업은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장애는 하늘로부터 내린 천병이라도 되는 것인가? 아무리 장애인 인식개선을 외치고 있지만 소용이 없다.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 한 언제까지나 그 형편에 변함이 없을 모양이라 안타깝기만 하다.



## MS, 시각장애인을 위한 듣는 지도 앱 출시!

마이크로소프트(MS)가 시각장애인이 주변을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 듣는 지도 앱인 '사운드 스케이프'를 출시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윈도우센터럴 등 외신에 따르면 MS는 영국과 미국에서 아이폰 용 사운드 스케이프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공개했는데요, 사운드 스케이프는 3D 오디오를 사용해 사용자들이 주변 환경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애플리케이션인데요, 3D 오디오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공간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기술로 이 3D 오디오는 사용자들이 머릿속에 주변 환경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그릴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MS는 이번에 출시된 사운드 스케이프 앱이 시각장애인의 길을 밝혀주길 기원합니다.



## 영국, 시각장애인 최초로 안내견 대신 안내마 입양해

영국의 한 시각장애인 남성이 개에 대한 공포증이 심해 안내견 대신 안내마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블랙번에 사는 시각장애인인 모하메드 살림 파텔(23)은 망막색소변성증을 앓고 있는데요, 시력을 완전히 잃고 안내견을 인도받으려 했지만 개에 대한 공포증이 심했던 파텔은 안내마를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파텔이 인도받을 안내마는 아메리칸 미니어처 품종의 디그비라는 이름의 미니말로 현재 훈련 중에 있습니다.

안내마는 평균 수명이 30~40년이라는 점에서 10년 안팎의 안내견보다 훨씬 더 오래 주인과 함께 살 수 있고, 본성적으로 길을 안내하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생에서 무리에 눈이 먼 말이 생기면 나머지 말들이 도우며 생활하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디그비와 파텔도 서로 좋은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NEWS



### 한국화면해설 · AD작가협회 발기인 대회 및 설립총회 가져

지난 2월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는 한국화면해설 · AD작가협회 발기인 대회 및 설립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행사는 정회원, 준회원을 포함, 방송, 학술 관계자, 그리고 시각장애인 시청자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과 재단법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최병연 시청자 지원부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후 행사는 임원선거 및 본 협회의 운영 안내, 안건심의, 이사진 선출, 화면 해설 작가 활동인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앞으로 수준 높은 화면해설영상 제작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주길 기대합니다.



###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공직진출대비반에서 공무원 2명, 교원 2명 최종 합격!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관장 박준석) 공직진출대비반에서 지난 2017년에 공무원 2명, 교원 2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공직진출대비반은 공직고시학원인 KG 패스원과 협약을 맺고 임용 대비 온라인 강의, 학원강의, 학습자료 등을 무료로 지원 받고 있는데요. 2017년에는 국가직 9급 세무직 1명이 합격했고, 공개경쟁채용 추가 시험에서 서울시 9급 사회복지직 1명이 추가 합격하였습니다. 또 충남시 교육청 중등특수 1명, 서울시 교육청 중등특수 1명이 교원 임용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이번에 합격한 4인의 합격을 축하하며 앞으로 보람된 날들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 꾸까와 함께하는 꽃향기 가득한 토요 원데이클래스!

지난 2월 10일과 24일 토요일, 서울특별시립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토요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으로 꾸까와 함께하는 꽃바구니 만들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핀란드어로 꽃을 의미하는 단어인 꾸까는 꽃을 정기적으로 배달해주는 플라워 브랜드 인데요, 이번 클래스는 시각장애인 12명과 비장애인 12명이 1대 1로 짝을 지어 진행되었습니다.

노란 장미와 수선화, 프리지아, 카네이션 등의 꽃을 조합해 꽃바구니를 만들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시각장애인들은 꽃바구니를 만들며 한 발짝 다가온 봄의 향기를 느끼며 즐거워했습니다.



### G.X 수업으로 근력을 향상시켜요!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2018년 새로운 생활체육교실사업으로 G.X (Group Exercise)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G.X수업은 짐스틱(gymstick)을 이용해 진행되는데요, 짐스틱은 스틱 양쪽에 고무줄이 달려있는 운동기구로서 고무줄의 탄성을 이용해 운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짐스틱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부족한 근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좋은 운동기구인데요, 수업 참가자들은 매주 월요일 1시간 씩 3월부터 11월까지 운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백세시대라 불리는 요즘, 참가자들이 G.X 수업을 통해 즐거움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 인사나 대화할 때

시각장애인을 만나면 밝고 또렷하게 말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말수가 적은 사람은 참 힘든 일이고,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목소리로만 대답하거나 기본예의를 갖추지 않는 태도는 삼가야 할 행동입니다. 비장애인을 대할 때와 마찬가지로 처음 마주칠 땐 고개를 숙여서 하고, 자주 마주친다면 그때는 소리로만 해도 괜찮겠죠.



### | 후원안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장애인 단체입니다. 후원자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우리은행 428-04-103943

하나은행 757-810001-08405

외환은행 170-22-00710-6



**손으로보는 세상 2018년 3월 212호**

발행일 2018년 3월 15일    발행처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발행인 이병돈    편집 김민지

주소 07236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 22(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601호

T 02,799,1043    F 02,799,1017

홈페이지 [www.kbuwel.or.kr](http://www.kbuwel.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http://시각장애인.kr)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한국엠디 02,867,1921    캘리 모노D